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5월 도매 물가 전월에 비해 0.1% 상승
- WSJ: 전체 실업 청구 건수는 2021년 하반기 이래 최고치
- CNBC: 미 5월 예산 적자 3천1백60억 불...연간 누적 적자는 작년 비교 14% 증가

[미국 금융]

- Bloomberg: 인플레 둔화로 국채 금리 인하...증시 약간 상승
- Reuters: 달러, 크게 떨어지고 있다

[무역 전쟁]

- Bloomberg: 트럼프, "2주 안에 각각 관세율 통보하겠다"
- Bloomberg: 일본 총리, "미중 관세 협상 해결 멀어"
- Bloomberg: 미국의 5월 관세 수입 최고치 기록

[자동차]

- Bloomberg: 트럼프 자동차 관세, 일본 경제에 주요 타격

[원유]

- WSJ: 브렌트유, 여름 이후 70달러대 유지 힘들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에어비앤비, 월드컵 여행 수요로 FIFA 테마 체험 제공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Wholesale Prices Ticked Up in May

5월 도매 물가 전월에 비해 0.1% 상승

- 오늘 목요일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5월 도매 물가가 4월에 비해 0.1% 상승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0.2%보다 낮았다.
- 인상세는 주로 서비스와 상품 물가 그리고 식품비에서 이루어졌는데 에너지 가격은 변동 없었다.
- 생산자 물가지수는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2.6% 상승했는데 이는 전월 연율에 비해 약간 높았다.

WSJ 기사

WSJ: Continuing Claims for Unemployment Benefits Hit Highest Since

Late 2021

전체 실업청구 건수는 2021년 하반기 이래 최고치

- 지난 6월 7일까지의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24만 8천 건으로 전주와 비교 변동이 없었다. 반면에 지난 2주간의 실업청구건수는 작년 10월 이래 가장 컸다.
- 특히 전체 실업인구를 추정할 수 있는 전체 실업청구건수는 1백96만 건을 기록 했다. (5월 31일 주간으로 주간 청구 건수보다 한주 늦게 발표)
- 이는 1천9백70만 건이었던 지난 2021년 11월 이래 가장 높은 숫자다.

WSJ 기사

CNBC: U.S. budget deficit hit \$316 billion in May, with annual shortfall up 14% from a year ago

미 5월 예산적자 3천1백60억 불...연간 누적 적자는 작년 비교 14% 증가

- 연방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5월에 연방 적자는 더 늘어 적자와 부채 이슈는 악화되고 있다.
- 4월의 경우 세금 신고 시즌이라 잠깐 흑자를 기록했으나 5월 적자는 3천1백60 억 불을 기록했다. 올해부터 현재까지 적자는 1조3천6백50억 불이다.
- 연간 누적 적자는 작년에 비해 14% 증가했다. 반면 5월 적자는 작년 5월에 비해 9% 적었다.

CNBC 기사

[미국 금융]

Reuters: The dollar's crown is slipping, and fast

달러, 크게 떨어지고 있다

- 미국의 급변하는 무역정책이 시장에 불안을 주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는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다.
- 달러는 올해 다른 주요 통화에 비해 거의 10%가량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도 예상치 않는 외환 변동성에 대응하느라 힘겨워하고 있다. 이같은 외환 변동성은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영향을 주고 있다.
- Societe Generale의 선임 외환 전략가인 Kit Juckes는 “분명한 달러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Reuters 기사

Bloomberg: Stocks Bounce as Soft Inflation Sinks Bond Yields

인플레 둔화로 국채 금리 인하...증시 약간 상승

- 미 인플레 둔화 지표가 계속 나오면서 국채 금리는 1주일간 하락세를 이어갔고 달러는 3년 만에 가장 낮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경제가 약회되면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생기고 있다, 주식도 약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현재 S&P 500과 나스닥은 최근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금요일도 0.1% 상승하고 있다.
- 머니 마켓은 연준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는 가운데 국채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한편 2백20억 규모의 30년 국채 매각에 관심이 쓸리고 있는데 계속 증가하는 부채 때문에 투자자들이 만기 국채를 기피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loomberg 기사

[무역전쟁]

Bloomberg: Trump Says Again He'll Set Unilateral Tariffs in Two Weeks

트럼프, “2주 안에 각각 관세율 통보하겠다”

- 관세 유예가 오는 7월 9일 마감인 가운데 트럼프는 향후 1주나 2주 내 무역 파트너들에게 미국이 정한 관세율의 서한 내용을 발송할 예정이다.
- 트럼프는 그동안 20여 개의 국가들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이중에 영국과 관세 합의를 이루었고 중국과는 관세 휴전 내용에 합의했다.
- 트럼프 협상팀은 현재 인도, 일본, 한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유럽연합은 가장 마지막에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Japan and US Still Far Apart in Tariff Talks, PM Cited as

Saying

일본 총리, “미중 관세 협상 해결 멀어”

- 일본 총리인 Shigeru Ishiba는 무역 회담을 두고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크고 합의를 위한 일정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 일본 총리는 캐나다에서 열리게 되는 G7에서 트럼프를 만날 예정이며 아마도 두 사람은 일본의 미 국채 보유 및 관세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 일본은 7월 9일까지 관세 유예 기간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관세를 10%에서 24%로 상승된 관세를 부과받게 될 예정이다.
- 일본은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관세, 철강 등에 대한 50% 관세의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Tariff Revenue Hits Fresh Record, Helping Shrink May Deficit 미국의 5월 관세 수입 최고치 기록

- 5월 들어 미국의 관세 부과로 관세 수입이 2백30억 불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전년도 동월에 비해 270% 상승했다.
- 한편, 5월 재정 적자는 3천1백60억 불로 전년도 동월에 비해 17% 줄었다. 관세 수입으로 인해 5월 적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자동차]

Bloomberg: Trump's Auto Tariffs Strike at the Heart of Japan's Economy 트럼프 자동차 관세, 일본 경제에 주요 타격

- 미국이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매기면서, 일본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자동차 산업은 일본 전체 국내 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데, 관세로 인해 이번 회계연도에만 190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나 중소 공급업체들은 해고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이번 관세는 일본의 임금과 소비가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등 회복 기미를 보이던 시점에 나왔고, 이로 인해 기업들은 임금 인상을 미루고 성장 계획도 다시 조정하고 있다.
- 일부 자동차 회사들은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며, 생존을 위해 자동차 이외의 제품 생산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Bloomberg 기사

[원유]

WSJ: Brent Unlikely to Hold Around \$70 Post-Summer 브렌트유, 여름 이후 70달러대 유지 힘들다

- 싱가포르 투자은행 Saxo의 Ole Hansen은 브렌트유가 여름 성수기 이후에도 배럴당 70달러 선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 최근 중동 지역 긴장과 이란 핵 협상 기대감 약화로 인해 원유 선물은 여전히 상승세이지만, 시장에서는 단기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1.5% 하락한 67.11달러, 브렌트유는 1.4% 하락한 68.77달러를 기록했다.

- OPEC+가 생산을 더 늘릴 경우, 원유 가격은 급격히 떨어질 위험이 있다. 리서치 업체 리스타드 에너지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아지는 '콘탱고(contango)' 현상으로의 전환 위험도 경고했다.
- 모건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올해 4분기부터 원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과잉 공급은 2026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브렌트유는 배럴당 50달러 중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
- 한편, 미중 관세 협상과 미국 인플레이션 완화를 고려할 때, 유가는 여전히 강세이며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Airbnb to Offer FIFA-Themed Experiences as World Cup

Tournaments Fuel Travel Demand

에어비앤비, 월드컵 여행 수요로 FIFA 테마 체험 제공

- 에어비앤비가 FIFA와 협력하여 축구 팬을 위한 FIFA 테마 액티비티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한 16개 도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올여름부터 시작해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 참가자들은 미국 골키퍼 Tim Howard와 개인 훈련 세션을 진행하고, 전 LA Galaxy 선수였던 Cobi Jones와 함께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등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 더욱 많은 축구 팬들이 현재 프로그램 공개일만을 기다리며 여행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 에어비앤비의 공동 창립자 Nathan Blecharczyk는 호스트가 하루 숙박비로 222달러를 청구하면 1-2주 동안 평균 3,000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FIFA와의 협업이 단순한 수익을 넘어 지역 사회와의 연결, 그리고 상징적인 경험 제공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뉴욕증시, 미중 합의·인플레 안도에도 약세...나스닥 0.5%↓ 이란 핵협상 앞두고 이라크 美대사관 철수명령에 지정학적 긴장 고조

미중 양국이 제2차 무역협상에서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세부 사항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데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게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0포인트(0.00%) 내린 42,865.77에 마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